

한·중·일 전통 수납류가구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Furnitures for Storage

하재경*
Ha, Jae-Kyung

Abstract

Purpose of this paper is find the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furnitures for storage. Also this paper tries to have a comparative analysis on life style, characteristics of housing space and furniture's form of three countries.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pace scale and seat levels of three countries are related to furniture's height and form, so that Chinese furniture have over scale than human, and Japanese furniture have the type of box for stacking. Second, the way of heating and materials of floors are concerned with the type of furniture's legs. Third, even if these dissimilariti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ree countries furniture would be a data base for making design identity of East Asian modern housing furniture.

키워드: furnitures for storage, similarity, dissimilarity, comparative analysis

keywords: 전통 수납류가구, 유사성, 차별성, 비교분석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동양적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구의 이성중심의 기능적 디자인의 패러다임에 동양문화의 감성적 사유체계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동시에 동아시아 주변 국가의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중,일은 동아시아 문화적 정체성의 중심국으로서, 한,중,일 전통가구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급변하는 트렌드 변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적 브랜드의 차별화와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현대주거에 있어 수납류가구는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실내공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시각적 요소로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중대형위주의 공동주거(아파트, 오피스텔 등) 및 숙박공간(호텔, 리조트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빌트인 가구 및 옵션형 가구의 비율이 증대되고 있어, 수납류가구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문화적가치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한,중,일 전통 수납류가구들은 그 지역 사용자의 조형의식, 관습, 생활방식과 같은 문화적, 역사적 결과물로서

발전해 왔으며, 따라서 삼국의 가구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동아시아적 정체성을 담은 수납류 가구디자인의 개발의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입식 생활양식에 근거한 서구적 디자인과 차별화된, 좌식 및 평좌식의 동양적 생활양식에 근거한 가구와 주거모델의 확립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구체화할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1.2.1 시대적 범위

본 연구의 시대적 가구의 연구범위는 14~18세기(한국의 조선, 중국의 명,청, 일본의 무로마치, 에도시대)에 중,상류층 사용자의 생활가구를 중심으로 한다.

14~18세기를 시대적 범위로 한정된 것은 위의 시대적 범위에 속한 가구는 현재 원형으로 보존된 고가구류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디자인의 원형으로써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중흥기로서, 미적으로도 완성된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중상류층 사용자의 생활가구로 한정된 것은, 당시대의 주류를 이끌어 가던 계층으로 가계경제의 구애 없이 다양한 수납가구의 조형적 원리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정형화된 수납가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정회원, 안산공과대학 실대디자인과 부교수

1.2.2 가구 범위

본 연구는 한.중.일의 전통생활가구 중에서 수납가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생활양식과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의 결과가 현대적 의미의 가구들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중.일의 가구를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사물, 가구의 관계를 기준으로 단순한 탁자류(C.Put things on)가구를 제외한 수납용 가구(uses it storage, chests, shelves or wardroves)로 제한한다.

표 1. 연구의 시대적 범위

	1500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중국	1500-1550		1572-1620	1661-1722	1725-96			
	명(Ming dynasty, 1368-1644)			청(Qing dynasty, 1618-1912)			중화민국	
한국			조선조 1392-1910	영조 1724-1776	정조 1792-1800	고종 1862-1897		
일본	1400-1700		1600-1800					대일본제국
	1500	1600	1700	1800	1900			1900

표 2. 수납용 가구의 유형(A,B)

영역 구분	영역 특성	유형코드 및 명칭
사람 사물 가구	사람과 사물, 가구와의 상호관계에서 나온 영역으로 사물을 넣는 것, 사물을 올릴 수 있는 것 등의 사람의 행위패턴 지원하는 가구가 속하는 영역이다.	A. Put things in
		B. Put things in & on
		C. Put things on

1.3. 연구방법

1단계: 한.중.일 생활양식비교

한.중.일은 좌식, 입식, 평좌식의 각기 다른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는 주거공간과 가구의 양식에도 반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화특성은 현재까지도 각국의 주거문화에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2단계: 한.중.일 수납용 가구의 유형분류 및 특성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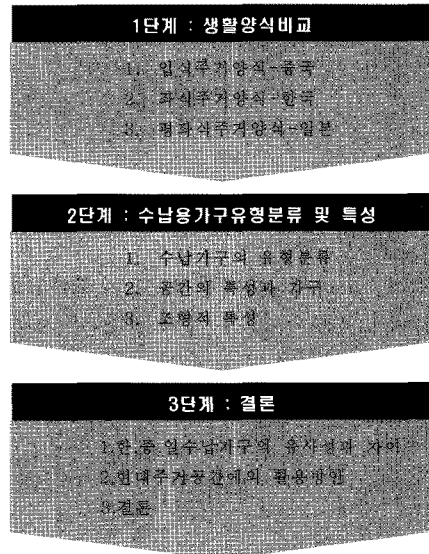
한국의 장(櫥),농(籠),문갑(文匣),궤(櫃)등의 수납가구는 중국의 궤(櫃),상(箱),짜아거(架格)와 또한 일본의 탄스(簾笥), 나가모치(長持),히쯔(櫃),분코우(文匣)등과 그 기능과 형태가 유사하다. 이러한 각각의 가구를 A.Put things in / B.Put Things in & on 로 사용행위에 따라 유형화하고, 한.중.일의 주거공간의 특성에 따른 가구의

배치원리 및 이동성에 대해 비교하고, 각각의 가구의 조형적, 미학적 특성을 비교한다.

3단계: 결론

위의 1,2단계의 결과로 한.중.일 수납가구의 유사성과 차이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고, 현대 가구디자인의 동양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여, 현대 주거공간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표 3. 연구의 단계



2. 한.중.일 생활양식비교

2.1 입식주거양식-중국

중국 전통가옥의 대표인 사합원은 ‘口’자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구성으로, 이를 구성하는 건물의 단위를 청(廳)이라 한다. 청은 보통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중앙에 있는 공간이 당(堂)으로 거실로 사용되는 곳이며, 좌우의 공간이 와실(臥室:침실)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중앙에 공적인 공간을 배치하고 양쪽에 사적인 공간을 배치시키는 것이 ‘일명이암(一明二暗)’의 공간구성으로, 중국 고유의 생활방식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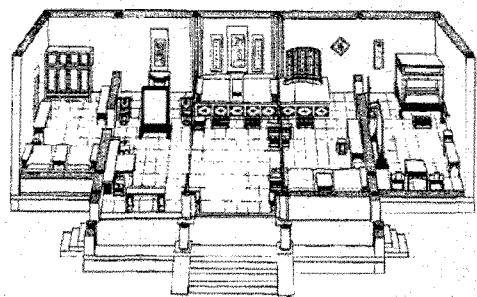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주택 기본단위 ‘청(廳)’의 내부²⁾

1) 국문리, 중국가구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12
2) 손세관, 넓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1, p192

당은 입식생활 공간으로 바닥은 주로 전(塼:구운 벽돌)을 깔아 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자를 사용하는 입식공간이었으며, 양쪽의 와실은 '상(牀)'이나 '탑(榻)'과 같은 침대 형식의 입식가구와 의류 등의 수납을 위한 '궤(櫃:장)', '상(箱:함)'와 같은 수납가구를 사용하였다. 중국 북부 일부지방에서 와실에 한국의 온돌과 유사한 '항(炕)'을 사용하여 좌식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항수(炕廚)'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문갑과 유사한 것으로 좌식공간에 맞춰 높이를 낮게 하여 소소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주간에 침구류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중국은 입식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좌식생활을 받아들임으로서 다양한 가구류가 발전하게 되었다.

2.2 좌식주거양식-한국

입식 혹은 좌식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주거공간의 난방 기술인 '온돌'의 사용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배계급의 주거공간에서는 중국식 침대와 같은 와탑(臥榻)이 사용되었고, 의자와 침상을 이용한 입식생활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평민의 주거에는 땅을 파 아궁이를 만들고 흙침상을 두어 그 위에 눕는다는 기록으로 보아 서민계층에서는 온돌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온돌은 서민계층에서 시작하여 고려의 지배계층에도 도입되어, 조선에 이르러 지배계층의 주거에도 보편화 되었으며, 동시에 입식위주의 생활양식을 좌식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³⁾

조선의 주거양식은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전기와 후기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신분별로 주택의 규모를 제한하였으며, 사대부 계급에서 남녀 및 신분을 구조적인 담과 채로 구분하고, 고려 말 주택의 영향으로, 온돌과 마루가 한 집에 혼합되는 양식도 보인다.⁴⁾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들어서 '주자가례'가 정착되면서 집 안에 가묘(家廟)를 세우고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집안의 중요한 행사가 되면서 사랑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사랑채는 접객장소로서의 의미도 커져서 이 시기의 양반가들은 사랑채를 장대하게 꾸미고 제가를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정착되었다.

유교적 생활문화의 보급에 따른 주생활의 변화 중 두 번째는 내외법(內外法)에 따른 남녀의 영역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⁵⁾ 조선시대 주택내부에서 수납가구가 놓인 주요한 공간들은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되는데, 안채는 여성의 공간으로 안방과 건넌방, 안대청과 곳간, 부엌으로 이루어지며, 사랑채는 남성의 공간으로 사랑방, 대청과 누마루, 침방과 서고, 그리고 사랑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2.3 평좌식 주거양식-일본

일본의 주택은 귀족 및 지배계급의 주거인 타카유카

(高尙)주거(그림5)와 피지배자 및 서민의 주거인 타테아나(竪穴)주거(그림4)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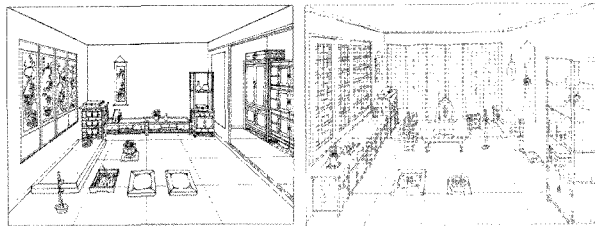


그림 2. 사랑방 실내하 그림 3. 안방의 가구배치하



그림 4. 타테아나(竪穴)주거하 그림 5. 타카유카(高尙)주거하

타카유카는 목구조로 바닥을 높인 고상주택인 반면 타테아나는 지면을 파고 지어 흙바닥을 가진 주거이다. 지배층 주택인 타테아나의 경우 고대에는 의자식의 입식생활을 하였으나 중세에 다시 평좌식 생활로 바뀌어 근대에는 좌식과 의자식 생활양식이 공존하였다. 이렇듯 의자를 사용하는 입식주거가 정착되지 못하고 다시 고대의 좌식주거로 돌아온 것은 한국의 변천사와 유사하나 한국의 경우 좌식주거의 보편화가 온돌이라는 건축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면 일본의 경우는 다다미를 깔게 됨으로써, 초오다이(帳台:침대류 가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의자 등도 필요 없게 되었다. 대신 바닥 높이에 변화를 주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높은 바닥에 앉게 하여 의례적 공간에서도 완전한 평좌식 생활이 이루어졌다. 근대 이전 일본주택의 원형으로는 쇼인즈쿠리 양식과 신텐즈쿠리 양식이 있다. 쇼인즈쿠리와 신텐즈쿠리의 가장 큰 차이는 신텐즈쿠리는 가구 배치(시즈라이: 가구를 이것 저것 배치하는 것)가 다양하고, 미달이문(쇼오지), 발(스다래), 휘장(카타바라), 병풍(묘오부), 칸막이(츠이타테) 등으로 필요에 따라 공간의 확장과 전환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반면 쇼인즈쿠리 양식은 공간이 각각의 방으로 분화되면서 미달이문(쇼오지)도 차츰 고정화 되고, 선반 등도 불박이로 설치되어 시즈라이(다양한 가구배치)가 필요없게 되어 실내가구의 종류와 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신텐즈쿠리의 공간적 유연성과 쇼인즈쿠리의 절제된 가구의 사용과 가구의 건축화 경향은 지금도 좁은 주택사정의 일본식

3) 강영환, 새로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2, p123
 4)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5) 강영환, 새로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2, p165

6) 출처: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7) 상계서
 8) 小泉和了, 日本史小百科-家具, 동경출판사, 1995,p12
 9) 상계서, p13

하재경

주거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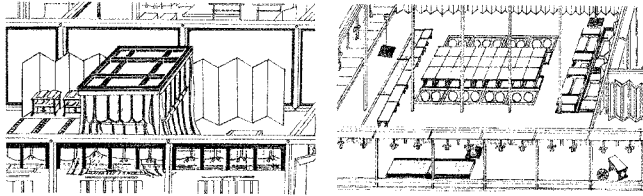


그림 6. 신헌즈쿠리의 시초라이 (출처:小泉和子, 日本史小百科-家具, 동경출판사, 1995,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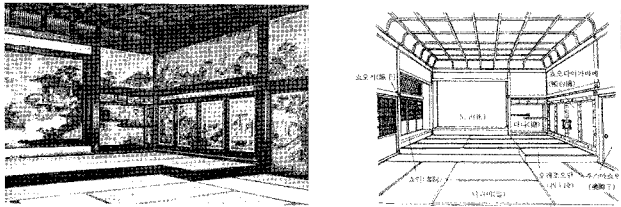


그림 7. 쇼인즈쿠리 주거 내부 (출처:小泉和子, 日本史小百科-家具, 동경출판사, 1995,p20)

3.수납가구 유형분류 및 특성

3.1.용어 및 명칭의 분류

한중일 수납가구는 수납기능 위주의 장과 함 (A:cabinet, chest)류와 장식 및 수납기능의 선반(B:shelves)류 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 한중일 수납 가구의 유형분류

유형코드 및 명칭	한국	중국	일본
A. Put things in: cabinet, chest, wardrobe, dresser	1.장,농	1.궤(櫃)	1.탄스
	2.함	2.상(箱)	2.나가모치
	3.궤 및 반단이		3.바코
B. Put things in & on :shelves	1.문갑류	1.항수(炕蓆)	1.타나
	2.사방탁자	2.가각(架格)	2.토타나
	3.탁자장	3.가각궤(架格櫃)	

궤(櫃)는 한국의 의걸이장과 같은 외형으로 의류 등을 접어서 보관하는데 사용되며, 보다 작은 규모의 수(櫥)와 같은 가구도 이에 속한다. 기원은 원시적 형태의 상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면으로 부터의 습기를 막기 위해 낮은 상위에 놓고 쓰다가 점차 다리를 달아 사용되었다. 한다.¹⁰⁾ 가각과 가각궤는 물건을 진열, 장식하고, 실내를 꾸미기 위한 필수품으로 한국의 사방탁자 등과

10) Gustav Ecke, Chinese Domestic Furniture, Tokyo Charles E. Company, p19, 1962.

유사하나 그 종류와 배치수법이 훨씬 다양하다.(표.5)

표 5. 중국 수납 가구의 유형

A-1. 궤(櫃)	
B-2. 가각(架格)	
B-3. 가각궤(架格櫃)	

한국은 계절의 변화가 크고, 공간의 기능적 분화(침식 공간의 분리) 보다는 통합(공간의 다기능성)적으로 사용된 관계로 의복과 이부자리 등 수납의 부피가 크고, 다양하여, 2층,3층장과 농, 의걸이, 머릿장, 문갑 등 A유형에 속하는 가구류가 수납물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했다. 이러한 한국 수납가구의 특징과 다양성은 특히 안방가구에서 두드러지게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사랑방의 가구는 사방탁자와 책장, 문갑 등으로 단출하며, B유형의 가구를 절제하여 배치하여, 사용하였다.(표.6)

표 6. 한국 수납 가구의 유형

A-1. 장,농	
A-2. 함	
A-3. 궤, 반단이, 가께수리	
B-1. 문갑	
B-2. 사방탁자	
B-3. 탁자장	

일본의 수납가구인 탄스는 특히 서랍부분이 발달되고, 다양한 여닫이 방식을 하나의 가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전통의상이 개별적으로 접어서 보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11)

일본식 '트렁크'라고 할 수 있는 나가모치는 이동식 가구로 특히 에도(1600~1868)시대 혼란한 사회를 반영한 가구로 바뀌달린 나가모치(구루마 나가모치)는 비상시 살림 도구를 챙겨 이동할 뿐 아니라 어린이나, 노약자가 타고 이동이 가능한 형태이다. 일본은 한국, 중국에 비해 B유형의 가구가 적은 편으로 이는 전술한 대로, 불박이 선반과 가구의 건축화에 기인한다. 또한 일본의 고유한 바닥재인 '다다미'는 탄성과 습기조절 능력이 뛰어나, 가구와 바닥사이의 공간이 필요 없는 관계로 다리가 없는 상자형 가구 형태로 발전하였다.(표.7)

표 7. 일본 수납 가구의 유형

A-1. 탄스	
A-2. 나가모치	
A-3. 바코	
B-1. 타나	
B-2. 트타나	

3.2.공간의 특성과 가구

한·중·일은 주거공간의 건축구조, 난방방식, 주거문화와 사상, 기후 등의 차이점으로 인해 전통가구에도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발전해 왔다.

3.3 조형적 특성

중국의 가구는 건축의 웅장함과 육중한 비례를 이어

11)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Kodansha International, p75, 2005.

표 8. 한·중·일 공간특성과 가구특성의 비교

	공간의 특성	가구의 특성
한국	1.좌식생활방식 2.온돌-바닥난방 3.남녀공간의 분리 -성리학적 영향 4.계절차에 의한 다양한 생활용품	1.사용자 시선방향의 가구배치 -아랫목 (문갑 등의 낮은 가구->윗목(장, 농)) 2.다리(풍혈)부분 발달-바닥온도 변화 적응 3.사랑방가구와 안방가구의 의정적 차이 4.보관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다양한 가구 종류의 발달
중국	1.입식생활방식 2.화로에 의한 난방 3.1실1기능의 공간배치 (일명이암) -와실 (침실:사적공간)과 강(거실:공적공간)의 분리 4.정당(政黨)이 주택의 심원적 중심공간	1.장류가구는 밑에서 위로 약간 좁아짐 -입식 사용자의 시선높이 고려 2.아자(牙子)-풍혈의 발달 -전바닥의 온도, 습도차에 의해 생겨 의정적 요소로 발전 3.'당'의 경우 일명이의(一梁二椅)13), 반당(半堂),정당(整堂)14) 등의 셋트식 가구배치 4.장식장 같은 장식목적 가구류 발달
일본	1.평좌식 생활방식 2.고상주거(다카유카)와 다다미 -탄력있고 온도, 습도에 비교적 안정적인 바닥 3.기능의 융통성 -칸박이와 가구의 이동설치로 1실다기능의 공간	1.가구의 전면성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한중 가구에 비해 높이가 비교적 낮음. 2.다리가 없고, 바닥에 밀착된 형태 3.사용 후 처리 및 수납이 용이한 불박이 가구 및 건축화 가구개념의 발달

표 9. 한·중·일 가구의 조형적 특성

	한국	중국	일본
조형적 특성			
조형적 특성	1.간결성 :곡선, 세선대신 간결한 직선 사용 2.자연성 :무기교적 장식, 목재자체의 재료감, 소박한 외형. 3.인간적 비례 :좌식생활에 근거한 휴면 스케일의 적용	1.입체적 :투각, 부조 등의 입체장식 명,청의 화려한 건축양식의 반영 2.표현성 :장대한 외형에 기교적 장식, 석재 빛 준보석재 사용 3.공간적 비례 :인간을 압도하는 웅장한 공간 스케일의 반영	1.결제미 :지진 등의 자연조건과 이동성을 고려한 단순함. 2.도식적 :강한 직선적 조형비의 실내 공간에 맞는 직선미 3.모듈적 비례 :좌식 범위 안에서 필요시 쌓아 사용할 수 있는 모듈적 비례

12) 명대 가구에 사용된 결구 부속재로 횡목과 입목 사이에 사용되어, 지지작용을 보조하고 장식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공예미술사전, 홍릉강 인민출판사,1988) 조선목가구의 '풍혈'과 같다.

13) 하나의 스톨과 두개의 의자

14) 반당:2개의 소테이블과 8개의 의자 정당:4개의 소테이블과 8개의 의자.

받아 거대한 스케일을 반영하고 다양한 형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화려한 장식과 면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한국전통 가구의 특성은 간결한 선과 명확한 면, 단아한 비례와 짜임새 있는 구조, 소박한 금구장식, 못을 쓰지 않는 결구법 등이 나타나며, 일본은 경쾌한 직선을 중심으로 형을 전개하며 계획성과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¹⁵⁾

4. 결론

동아시아 문화 삼국에 한.중.일이 포함되는 것은 삼국이 유교, 불교, 도교의 공통된 사유체계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으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은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생활문화적 차이에 의해 주거공간과 그에 따른 가구의 발달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한국은 앉은키 높이의 문갑에서 서서 사용하는 장.농에 이르는 다양한 높이의 가구류가 발달하였으며,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조형성을 특성으로 한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수납장과 장식장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입식 가구의 전형을 보여 주며 입체적이고 표현적 장식은 중국 건축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 준다. 특히 다양한 디자인의 장식용 가구류는 최근 인테리어 전반의 오리엔탈리즘의 확산의 영향으로 문양, 색채 등이 모티브로 활용되어 그 문화적 가치를 상업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일본은 한국,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박스형 가구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다미와 미닫이문, 노출된 벽면과 천정의 구조체가 주는 강한 직선적 이미지의 실내공간과 조화된 도식적이고 절제된 형태미의 가구류는 주로 앉은키 높이에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정제된 디자인은 80년대 이후 미니멀리즘과 젠(ZEN)스타일과 교류되어, 서구적 조형미에 근간을 두던 가구디자인 분야에 동양적 이미지의 주요 소재가 되어왔다.

이러한 삼국의 가구는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연친화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양적 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성이 배제된 양식의 혼재는 오히려 삼국의 전통가구의 문화적 우수성을 폄하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 전통가구의 類以點(similarity)과 相異點(dissimilarity)를 밝혀 현대적 공간의 친자연적이고 동양적인 가구디자인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문리, 중국가구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p12

2. 손세관, 넓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1, p192
3. 강영환, 새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2, p123
4.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5. 小泉和子, 日本史小百科-家具, 동경출판사, 1995, p12
6. Gustav Ecke, Chinese Domestic Furniture, Tokyo Charles E. Company, p19, 1962
7.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Kodansha International, p75, 2005.
8.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형, 도서출판 국제, 2006, p199
9. Arthur drexler, 'the Architecture of Japan
10. Grace Wu Bruce, 'Chinese Classical Furni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1. Nancy Berliner, 'Beyond the Screen-Chinese furniture of the 16th & 17th

(접수 : 2007.5)

15)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형, 도서출판 국제, 2006. p199